

전시리뷰

京都國立博物館 特別展

《宋元佛畫—蒼海を越えたほとけたち》

2025年 9月 20日 ~ 11月 16日

京都國立博物館

〒605-0931 京都市東山區茶屋町527

박민강*

가을빛이 짙어지는 계절, 교토국립박물관에서는 2025년 9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송원 불화의 일본 내 수용과 전개를 조망한 특별전 《宋元佛畫—蒼海を越えたほとけたち》가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던 170여 점의 한·중·일 불화를 한자리에 모아 선보임으로써, 송원불화가 단순한 외래 유입품이 아닌 일본 불교미술의 조형 감각을 형성한 중요한 기반이었음을 환기하였다.

전시는 3층에서 1층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수용-변용-창출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풀어냈다. 먼저 3층의 〈宋元文化と日本〉 섹션은 일본이 송원문화를 ‘가라모노(唐物)’라 칭하며 숭상했던 태도를 조명하였다. 회화와 도자기 등을 함께 제시해 일본이 송원문물에 부여한 이상적 취향과 미의식을 드러냈으며, 이어진 〈大陸への求法〉에서는 송원불화를 일본에 들여온 승려들의 진영과 유물을 통해 이들이 문화 전파의 핵심 매개였음을 보여주었다.

2층은 전시의 핵심부로, 송원불화가 일본 불화 전반의 조형 감각을 규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宋代佛畫の諸相〉 섹션에서는 〈공작명왕상〉을 비롯한 걸작들을 통해 송원불화의 미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뒤이어 전시된 육신층의 작품들은

*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졸업



영파불화 특유의 담묵과 유연한 필선이 빚어내는 독자적 감각과 양식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牧谿と禪林絵画>에서는 목계를 중심으로 일본 선종회화의 형성과정을 조망하였고, 후기 전시의 대표작 <관음원학도>는 목계 수묵 세계의 정수를 응축한 작품으로 그 회화적 특징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또한 <高麗仏画と宋元時代>는 고려불화가 송원 회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색채와 구성에서 고유한 미감을 구축해 가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특히 묘만지 소장 <미륵하생경변상도>는 정교한 필치와 장엄한 화면으로 관람객의 시선을 오래 붙들었다.

1층에서는 송원불화가 일본 미술 내부에서 창작의 원천으로 작동한 과정을 살폈다. 별도로 마련된 조각과 사경 공간은 회화 외의 매체가 일본 불교미술의 형식과 감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어진 <仏画の周縁> 섹션은 불화가 도교적 도상과의 교섭을 통해 상징체계를 확장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불교 이미지가 주변 신앙과 접점을 이루며 변주되어 온 양상을 드러냈다. 마지막 <日本美術と宋元仏画> 섹션은 송원불화가 규범적 도

상으로 반복 복제되는 단계를 거쳐, 결국 일본 미술의 새로운 창작 어법으로 흡수·전개된 흐름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송원불화는 특정 지역의 회화 전통에 머물지 않고, 일본은 물론 동아시아 불화 미감 전반을 길항하고 이끌어온 매체였다.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시대와 지역의 차이는 오히려 서로를 비추는 장치가 되었고, 관람객은 그 속에서 이미지가 이동하고 변주하는 과정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송·원 불화의 매력을 단순히 ‘본다’는 차원을 넘어, 그것이 어떤 길을 건너와 어떤 감각으로 다시 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자리로 확장시켰다.